

[기획 논문]

‘과거’로 쌓아 올린 현재의 제주

A Study on the literary space of Jeju

— 관광 제주 속의 문학 공간

김중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사무국)

차 례

- | | |
|-----------------------|-----------------------|
| 1. 어느 섬의 가능성 | 4. 전설의 훼손과 기억으로의 회복 |
| 2. 오랜 변방 | 5. ‘과거’로 쌓아 올린 현재의 제주 |
| 3. 관광 산업화와 신제주의 빛과 그늘 | |

1. 어느 섬의 가능성¹⁾

섬은 고립과 자유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 하늘의 그림자인 바다를 비행하는 열기구처럼 어느 화산섬은 이제 한없이 자유롭고, 구름과 같은 몽환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 역시 바람을 닮았다. 바람을 닮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일찍이 무거운 돌과 같은 상처를 남긴 것은 다름 아닌 현대사의 질곡이다. 이런 것들이 제주가 돌과 바람이 많은 이유라면 또 어떨까. 제주섬은 한반도에 찍힌 거대한 방점이다.

섬들을 생각할 때면 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되는 것일까? 난바다의 시원한 풍기며 사방의 수평선으로 자유스럽게 터진 바다를 섬 말고 어디서 만날 수 있으며 황홀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섬 말고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섬에

1) 미셸 우엘벡의 소설 제목 인용.

가면 〈격리된다isole〉— 섬Ile의 어원 자체가 그렇지 않은가? 섬, 혹은 〈혼자뿐인〉 한 인간. 섬들, 혹은 〈혼자씩일 뿐인〉 인간들.²⁾

프랑스의 작가 장그르니에의 산문집 『섬』에서 각주로 인용되는 ‘죽 선장’이 쓴 여행기 「여러 가지 여행들」의 한 대목이다. 섬을 통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양가적 이미지에 대해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타의에 의한 유배지로서의 섬, 반대로 자발적 고립으로서의 섬, ‘시원한 공기며 사방의 수평선으로 자유스럽게 터진 바다’를 가장 잘 만나볼 수 있는 이른바 풍유적 기능으로서의 섬. 여기서 제주 경우는 외세에 대한 마지막 항쟁지, 현대사의 질곡에 노출되면서 한때 죽음과 절망 공간이었다는 역사적 사실 등이 추가된다면 될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제주의 상처에는 제주가 섬으로서의 ‘고립’의 이미지와 함께, 역사 속에서 독립적인 바람처럼 ‘자유’롭게 비행하고 싶어 했던 원초적 지역색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광복이후 편협한 이데올로기의 톱니바퀴 속에서 48년 4월 3일 제주도민들은 분연히 떨치고 맞섰지만, 그 속에서 자유롭고자 했던 ‘바람’의 옷깃마저 빠져나오지 못하고 짓이겨진 것이, 지금의 역사이며 상처의 기록이다. 그러나 십여 년의 세월이 흘러 57년 4월 최후의 무장대원 오원권이 생포된 이후로 부터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사건의 전모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대신, 물에서 불어 닥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그 자체로 감감한 거대한 상처의 무덤이었던 제주는, 얼 떨어 끝에 정신없이 네온사인을 달고 국제적 관광도시로의 변화를 맞게 된다. 70년대 한반도 전역을 뒤덮은 독재적 산업화 속에서의 기형적 불평등 성장에 대한 희생양 역시 힘없는 민초들이었듯, 동시대 제주도의 관광 산업화 과정에서 도 원주민들에게 주로 돌아가는 것은 ‘소외’와 ‘상실’이었다.

그로인해 제주는, 제주 특유의 독특한 문화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원초적 생명력 역시 천편일률적으로 몰개성화 돼 버렸다. 이는 외국의 시각에서 조망했을 때, ‘독특한 이국’의 정서를 찾아볼 수 없이, 그저 그런 카지노와 리조트 그리고 경마장과 골프장 등이 마련된 자신들 나라의 그것과

2) 장그르니에, 「부활의 섬」, 『섬』, 민음사, 2001, pp.123~124.

무척 닳아 버린 제주를 과연 우리는 국제적 관광지라 부를 수 있을까.

선조 때 시인 백호 임제는 목숨을 걸고 이곳 제주바다를 여행했다고 한다. 태풍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닿은 그곳이 제주였는데, 그는 자신이 살던 물과는 전혀 다른 제주의 풍광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용암석으로 지은 집들, 짚으로 만든 옷을 걸치고 다니는 원주민들, 물 속 깊이 자맥질 하는 해녀들, 동굴과 그 속의 커다란 박쥐들, 그리고 이름 모를 꽃들³⁾ 따위에서 옛 시인은 제주의 원초적 생명력, 그 이색적 매력에 흠뻑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제주의 원초적 매력은 아이러니하게도 관광 산업화 과정에서 더욱 개발되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 위락시설건설 등으로 인해 사라져 버렸거나, 무분별한 건축물 자체가 자연에 편입되어 세트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절경(絶景) 자체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에 남은, 화산활동이 빚어낸 지형과 폭포 몇 개, 봄에 피는 유채꽃만으로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지라 말할 수 있을까. 문화가 파괴되고 전통의 흔적이 사라진 제주의 모습에서 그들이 독특한 이국정서를 느낄 여지가 없는 것이다.⁴⁾ 바로 이런 점들이 시나브로 제주섬 안에 서양인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라면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제주섬의 가능성을 현재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혹시 다시 지난 상처와 소외의 역사를 적자 장부처럼 꺼내들고, 그 아픔의 기억을 생생하게 복원함으로써, 오늘날의 ‘소외’ 또한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2. 오랜 변방

제주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변방이 ‘변방’이었고 역사적으로 시대의 약자들이 거대세력에 맞섰던 항쟁의 현장이었고, 수많은 민초들이 이슬로 증발했던 상처의 현장이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정치적 헤게모니가 바뀔 때마다 배척

3) 객재구, 「집어등을 켜 ‘반휴’의 바다-남제주군 대정읍 사계포」, 『객재구의 포구기행』, 열림원, 2003, p.212.

4) 위의 글, p.212.

되고 희생된 ‘죄인’들의 ‘3천리 유배지’로 주로 이용되었다.⁵⁾ 한 왕조가 생멸하는 동안, 제주도로 유배된 인물들의 면모는 무수히 많고 다양하다. 종종 때 조광조가 주도했던 개혁 정치의 핵심 세력 중 한 사람이었던 젊은 정치가 ‘김정’은 1519년 기묘사화로 인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뛰어난 시적 감성의 소유자였던 김정에게 당시의 제주는 고독과 허무로 사무치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제주섬은 언제나 그늘져 있고
거친 마을엔 온종일 바람만 가득
봄을 알고 꽃은 스스로 피는데
밤이 깊어가자 하늘엔 달만 등실
천리 밖 이역에서 고향 그리워
왕래 드문 고도에서 남은 목숨 이어가니
하늘은 이미 운수를 정해놓았을 텐데
막다른 길에서 울어 무엇하리

—「유회(遺懷)」

훗날 1578년 제주도에 김정의 묘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굴림서원으로 발전되면서 김정은 첫 번째 배향 유현이 된다. 이후 굴림서원에는 김정 외에 김상헌, 정온, 송인수, 송시열 등이 배향되면서 제주 5현으로 추앙된다. 제주 5현 가운데 김정, 정온, 송시열이 유배자임을 미루어볼 때 유배인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굴림서원은 국가 공인인 사액 서원으로 200여년을 제주도 교육 진흥에 기여하나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거하여 문을 닫으면서 지금은 제주시 이도동에 ‘오현단’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취만 행하게 남아 있다.⁶⁾ 이밖에도 이른바 유배문학의 주요 관광 답사지의 명소는, 고려 때 환로에 나선 고조기(1088~1157)의 분묘, 추사 김정희의 적거지⁷⁾ 등이 유명하다.

5) 하와이의 대표적인 여덟개의 섬 가운데 가장 작은 카호울라에 섬은 하와이 왕조의 유배지로, 주로 가톨릭 신자를 추방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그리스의 밋모 섬은 <목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박해 시대 때 유배되었던 곳이며 프랑스의 세인트 헬레나 섬은 나폴레옹 1세가 유배되었던 곳이다. —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지성사, 1999, p.15~16.

6) 양진건, 위의 책, p.79.

지금으로부터 약 200만년전인 신생대에 여러 차례의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화산도인 제주도는, 인간의 역사가 뿌리내린 이후 귀속과 독립의 연대기를 거쳐 왔다.⁸⁾ 이러한 제주의 역사는, 문학의 본질적 특성 중에 하나인 역사 기록적 요소를 자극한다. 현대문학에서의 4·3항쟁은, 특히 제주 출신의 시인, 작가들에게 그들의 문학의 현장성과 문학성의 자양분을 끝없이 제공하는 깊은 우물이 되어왔다.

이렇듯 제주의 역사는 변방의 역사이다. 제주는 제주로 유배되는 외지인이거나, 그런 ‘변방’에 사는 토착민들에게나 삭막한 공간이었다. 1800년대 말 모

7) 대정읍 안성리에 새롭게 복원된 적거지에는 <세한도> 등 최고의 걸작과 함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8) 신라 문무왕 6년(서기662년) 신라의 영향하에 들어가 속국이 된 이후, 삼국을 통일한 고려조에 들어와 고려가 탐라의 고려 귀속을 요구하는 강압에 의하여 고려 태조 21년(938년) 탐라태자 고말로가 고려에 입조하여 성주와 왕자의 직호를 받고 자치권을 인정 받는 고려의 속국이 되었으나, 고려 숙종 10년(서기 1105년)에 고려의 중앙집권제 통치하에 들어가 탐라국호가 폐지되고 고려의 일개 지방면제인 탐라군(耽羅郡)이 되었으며 제주(濟州)라는 명칭은 고려 고종 때(서기 1214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고려왕조가 元나라의 침략을 받아 이에 항거하여 일어난 삼별초가 제주까지 쫓겨 내려와 최후거점으로 항거를 전개하므로 고려 원종 14년(1273년) 몽고군(蒙古軍)이 제주를 침범해 삼별초를 진압한 후 원나라의 직할통치기구인 탐라총관부에 의해 원의 지배하에 들어가 원의 일본정벌을 위한 병참기지가 되었다. 그후 원이 쇠퇴하자 고려 공민왕 23년(서기 1374년) 최영장군이 제주에 내려와 몽고군을 토벌하고 1세기에 가까운 원나라의 지배를 종식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조선 태종3년(서기 1402년) 오랫동안 전래되어 온 성주(星主)·왕자(王子)의 칭호가 폐지되고 조선조 중앙에서 실질적인 행정력을 가진 목사를 두어 제주를 관할하였다. 태종16년(서기1416년) 한라산을 경계로 북쪽은 제주라 하여 목사를 두고, 동쪽에 정의현(旌義縣), 서쪽에 대정현(大正縣)을 설치해 현감을 두었다.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서도 제주는 버림받은 오지로서 취급을 받아 조선조의 정객과 학자들의 유배지(流刑地)로 이용되었으며 이때 유배되어 내려온 많은 정객과 학자들의 훈학(訓學)으로 인하여 제주에 유학(儒學)의 보급과 문화에 기여 하였다. 효종 4년(서기 1653년)때에 제주도의 유일한 정사문헌(正史文獻)인 “탐라지(耽羅志)”가 만들어 졌다.

고종 43년(서기 1906년)에 목사를 폐지하고 군수를 두었다. 1910년 정의현·대정현이 제주군으로 합군되는 동시에 추자면(楸子面)이 전남 완도군에서 분리되어 제주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군면 폐합 때 정의군·대정군과 완도군 추자면이 제주군에 병합되어 제주군은 제주도 전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조선조 이후 日帝治下를 거쳐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1946년 도제(道制) 실시로 전라남도에서 분리 “道”로 승격하여 오늘의 濟州道가 되었다. 1948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4·3사건이라는 아픈 상처를 겪었으며, 1960년대에 들어와 5.16 혁명후 보잘것 없이 낙후되어 있던 도서의 하나인 제주도가 한라산 중턱을 뚫고 섬의 남쪽을 횡단하는 5.16 도로의 개통을 시작으로 도로, 용수, 전력 등 본격적인 제주개발 정책이 추진되고 골 제배와 관광개발의 노력은 제주도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와 육지부간에 항공편이 취항하고 부산, 목포, 인천 등에 카펠리 해상교통편이 운항되어 육지부와외 교통이 크게 좋아지고 관광단지의 개발과 제주도 전역을 한시간대로 연결하는 도로망의 건설 등으로 관광개척 유치환경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현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로 출범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관광, 레저, 휴양지로 발돋움 하고 있다.

— 제주정보네트워크(www.chejuinfo.net), 역사 편.

슬포 일대와 황사평을 배경으로 한 이재수의 란을 소재로 하고 있는 현기영의 장편소설 『변방의 우짖는 새』에서도 제주가 변방 중에도 가장 척박한 극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외지인들에게는 고독의 유배지, 빈궁과 자괴와 신음과 절망의 공간이었던 제주. 그러나 그러한 거칠고 고독한 야생의 환경을 ‘관광’이라는 콘텐츠로 환원해가는 오늘날에 와서는, 거칠고 척박한 제주의 환경이 국제적 휴양 관광지로 주목을 받는 개발 요소가 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제주의 모든 곳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현기영의 「순이 삼촌」의 북촌리 일대, 현길언의 「깍질과 속살」을 포함한 작품 무대가 된 제주도 일원 등은, 원형이 보존되지 못하고, 특별한 표지가 없어, 둘러보는 일조차 쉽지 않다.⁹⁾ 문학 속에서 생명력 있게 꿈틀거리는 제주의 문학 공간을 답사하기가 실상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제주 조각 공원 신천지미술관에 마련되어 있는 ‘시가 있는 동산’¹⁰⁾은 아쉬운 대로 다소간 인위적이지만, 문학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곳에는 한국현대시의 주목할 만한 시인들의 시비가 54개 세워져 있다.¹¹⁾

3. 관광 산업화와 신제주의 빛과 그늘

60년대 이후 제주도는 국제적 관광도시를 표방하면서 거센 산업화를 맞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물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실상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지도 下』, 계몽사, 1996, p.293.

10) 북제주군 에일을 광령2리 1987년 개관.

11) 강동원 「제주역새꽃」, 구상 「백련」, 박재삼 「밤바다에서」, 권용태 「남풍에게」, 김광섭 「저녁에」, 김광협 「서귀포의 봄」, 김남조 「물망초」, 김동명 「파초」, 김소월 「산유화」 「먼후일」 「못잊어」 「진달래꽃」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엄마야 누나야」,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중원 「한라산」, 노천명 「자슴」, 도종환 「쑥새」, 문충성 「제주 바다」, 박목월 「나그네」, 박성룡 「교외」, 박제천 「연을 띄우며」, 변영로 「논개」, 서정윤 「성」, 서정주 「기도」 「동천」, 양중해 「보리피리」 「해녀의 노래」, 오성찬 「어머니」, 윤관강 「나비」, 윤동주 「서시」, 이성교 「해바라기 피는 마을」, 이성부 「전라도」, 이육사 「청포도」, 장유우 「피아니시모의 폐향」, 정지용 「고향」, 정진규 「들판의 비인 집이로다」, 정한모 「바람속에서」 「어머니」, 「아가의 방」, 조병화 「의자」, 조정권 「백지」, 조지훈 「승무」, 최철로 「탐라기행」, 한기팔 「불을 지피며」, 한영옥 「꿈의 환타지」, 한하운 「파랑새」 「보리피리」, 허영자 「어름감기」 「잡초」 「긴불날」, 홍윤숙 「사는 법」, 황금찬 「나 섬으로 가리라」, 성프란체스코 시비 「평화의 기도」.

무분별한 후진적 산업화는 제주섬의 환경과 생태를 훼손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섬의 몰개성화로 이어져 관광 경쟁력 약화를 야기했다. 무엇보다 상징적인 것은, 역사의 칼날도 도려내지 못했던 삶의 터전, 이른바 토박이들이 대를 이어 뿌리 내리고 지켜왔던 고향이 거대한 자본 앞에서는 속절없이 허물어져 갔다는 점이다.

제주의 거리에 하나 그득 넘쳐나는 것/갔다 왔다 잡동사니들이 몰려다닙니다/...
중략.../서울놈/부산년/팔도강산에서/돈 벌러 오고/돈을 뿌리러 오고/돈을 벌러 가
고 뿌리고 가고 그/술한 관광길을 돌하르방이 갑니다/.....후략¹²⁾

60년대 제주에 온 미스 김은 다방 일을 했다/ 고향이 부산입니다 미쓰 김이라 불
리주이소/...중략.../뚜우뚜 손수선 흔들며 뚜우뚜/가난한 제주를 떠나갔다//...중
략.../70년대 부산서 온 미스 김은 삼 년 넘게/다방 일을 하다 연애 한번 못 해보고/
투정부리며 제주 바다 건너갔다//80년대 제주에 온 미스 김은 전예/석 달 이상 한 다
방서 일 안 합니다/...중략.../불량배 아니른 투기꾼들뿐이라예/그래 누구하고 기분
을 풀겠는교/내일 비행기 타고 제주돌 떠날라합니다¹³⁾

자본의 유입과 함께, 서울에서 부산에서 ‘투기꾼’ 들이 몰려온다. 순도 높았던 제주섬의 정체성이 무분별한 자본에 짓밟혀 그 개성을 잃고 ‘잡동사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갇은 건 혈혈단신 몸뚱이 밖에 없었을 ‘미스 김’으로 대표되는 가난 타지 인들에게도, 그러나 제주도는 삶을 연명하기 위해 찾아드는 척박한 객지 불과하다. 제주인이나 타지인이나 산업화가 시작된 제주는 척박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대규모의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하루가 다르게 콘크리트 바닥에 들어선 광택 나는 대리석 호텔과 카지노, 경마장과는 전혀 무관하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 소외된 자들이다. 이러한 소외는 가난한 현지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물질 없고 가난한 현지인들은 대를 이어온 평생

12) 문충성, 「돌하르방」, 『제주바다』, 문학과지성사, 1978, p.21.

13) 문충성, 「다방 풍경」, 『설문대할망』, 문학과지성사, 1993, pp.92~93.

의 삶의 터전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변해가는 제주의 모습을 뒤늦게 상실감으로 지켜본다.

한때/三神山の 하나였던 제주섬의 한라산/이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돈벌이꾼들/관광 개발이란 멋진 이름 내세워/우리의 山神 쫓아내겠다는 시대도 있었지/개발하지 않는 것이 가장/제주섬다운 것이라고 최상의 개발이라고/한라산을 사랑하는 학자들/알파니스트들 토박이들이 말했지/산을 탈 줄 모르는 이들에게/편히 산을 탈 수 있도록/등반로 만들고 나무 계단 만들어 박아도/산 타는 이들 발목이나 부러뜨릴 뿐/이래저래 한라산이 앓고 있다 병들어/정정정 한라산이 울음운다/……후략¹⁴⁾

……전략/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이제 어디서 살 것이냐/팔도에서 물려/사고 팔고 사고 팔고/농사도 안 되던 척박한 땅/마소 키워봤자 밥먹기 힘들던 땅/그러나 따순 인정 넘쳐나고/계절 따라 눈물도는 들꽃들 피어나고/웃음과 바람과 무지개가 살던 섬/이곳저곳 다 팔아먹었으니/고향은 어디쯤 있는 것이냐/……중략……/땅만 사놓고/집도 짓지 않고/잡초들만 무성하게 키를 키우며/땅값 오르기만 기다리며/땅값 오르기만 부채질하며/사고 팔고 사고 팔고/제주섬은 돈덩이가 되어가는구나/일년 삼백 육십오일/비행기 타고 오거나 배를 타고 오거나/관광객들은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노래부르고 혼들어대고/관광 공해에 시달리느니/서서히 어찌면 우리도 관광객이 되어가는 것이냐/동서남북 눈 비벼 살펴봐도/고향이 하나도 안 보인다/돈만 보이고 고향 사람들이 안 보인다¹⁵⁾

문충성은 1938년 제주에서 출생한 시인이며, 평생을 제주에서 제주섬이 노래하는 바람과 물의 악보를 연주하고 있는 악공이다. 광복과 함께 4·3사건을 자신의 기억을 보존될 정도의 나이에 경험했으니, 그가 들려주는 시적 진정성은, 제주섬과 함께 신산했던 제주의 현대사를 함께 건너왔다는데 튼튼히 뿌리 내리고 있는 셈이다. 그의 많은 시편들이 4·3사건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틈에

14) 문충성, 「정정정 漢拏山은 울음울고」, 『설문대할망』, 문학과지성사, 1993, p.86.

15) 문충성, 「팔려버린 故郷」, 『설문대할망』, 문학과지성사, 1993, pp.98~99.

서 희생된 제주의 부모 형제에 축문(祝文)이었고, 본질적으로는 태초의 거대 화산의 폭발과 함께 탄생한 제주가 갖고 있는 원초적이며 신화성에 대한 복원을 향해 있다. 저 멀리는 삼별초에서부터 4·3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권력 앞에 언제나 최선의 모습으로 맞서왔던 제주에 대한 선행적, 경험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시인에 눈에 비친 관광 상업화의 모습을 어떻게? 자본 앞에서 제주 민초들의 영혼은 속절없이 기개를 잃고(빼앗기고)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이제 어디서 살 것이냐’ 아스팔트 위를 떠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이미 거대한 돈덩이가 돼 버린 고향땅 제주에서는 더 이상 ‘마소 키워봤자 밥먹기 힘들던 땅/그러나 따순 인정 넘쳐’ 나는 땅, ‘웃음과 바람과 무지개가 설던 섬’을 점점 찾기 힘들어진다. 외지인들이 이렇게 투기하는 제주 땅은 어떤 땅인가. 4·3을 겪어오면서 제주섬은 그 자체로 선조들이 묻힌 하나의 거대한 묘소가 되었다. 제주가 이렇게 무기력한 적이 있었던가. 피붙이 조상의 무덤 위에서 벌어지는 환락에 대해.

……전락/이 척박한 산야 노랑게/힘없는 잡초들 자리 뺏아 개민들레꽃들/와자자 자기네 세상 만들고 있는/산굼부리 가는 길이 멍텅하게 눈떠 있다/…중략…/무슨 경마장이 이리 많아져가는가/토박이 조랑말 하나 보이지 않고 풀 뜯다/키 큰 외국산 말들 내달리고 있다 들판을/버스 타고 낯선 관광객들도 렌터카 봉고들 몰고/내달려 간다 산굼부리로 산굼부리로 노랑게/…중략…//할머니 무덤에 생전 보지도/듣지도 못한 꽃들이 노랑게/지천으로 피어나 잔디가 다 죽었다고/……후략¹⁶⁾

‘할머니 무덤에서 생전 보지도/듣지도 못한 꽃들이 노랑게/지천으로’ 핀 외국산 잡종들은 도무지 손 쓸 수 없는 속도로 점령군처럼 제주를 뒤덮는다. 시에서 그려진 북제주군 초천읍 교래리 하동 동쪽에 있는 거대한 분화구의 산인 제주의 관광명소 산굼부리(천연기념물 제263호)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국산 꽃과 풀들로 가득 차 있다. 시인이 느끼는 위기감의 발로는 이러한 외산 동식물들이 ‘토박이’ 생물들을 잠식해 오고, 터전을 빼앗아간다는 데 있다. 그는 외

16) 문충성, 「개민들레꽃」, 『바닷가에서 보낸 한 철』, 문학과지성사, 1997, pp.29~30

지인들의 투기 자본에 삶의 터전이 잠식 된 제주 민초의 당시 모습과 상징적으로 동일한 의미망으로 투사하며, 본능적 경계심을 그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살아남은 몇 가지 개체들 또한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여유와 호젓함을 잃고 집 밖으로 내쳐져 팔려나가, 관광버스가 일으키는 '먼지나 뒤집어쓰는 가로수'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동백숲 이뤄 호젓이 있을 때 밤낮으로/온갖 새들 날아들었지 파닥파닥/새들은 우리 품안에서 노래했고/그 노랫소리에 우리는 미쳐나/터뜨렸네 꽃망울들 새 빨강게/신제주 생겨나고 서광로 크게 뚫리면서/가로수로 팔려왔네 우리는/10년 넘게 살았어도 잡새/한 마리 날아들지 않았네 이제/동백나무가 아니야 날마다/먼지나 뒤집어쓰는 가로수일 따름……후략¹⁷⁾

모슬포 바닷가, 검은 모래밭.//서쪽으로 몸 기운 소나무들이 있다//매서운 바람과 센 물살에도 속수무책인 나무들//오금 저리는 앓은뱅이의 생을 견딘다¹⁸⁾

동백나무 가로수는 먼지를 뒤집어쓰고라도, 제주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견디고'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제주시인 정군철은 '앓은뱅이의 생'을 모슬포 맵찬 바람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소나무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힘없는 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저항의 무기는 '견딤'에 있음을 시인은 말하고 있다. '매서운 바람과 센 물살'에 맞서 '속수무책'인 하지만 살아남아 견디는 나무를 통해 콘크리트에 봉인된 제주의 정신을 이끌어내고 있다. 토막이 제주민들, 동식물들 모두 그렇게 나름대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견뎌나가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딤의 힘은 안타깝게도(?) 고향을 지키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터전의 망실에서 얻어진다. 정군철 시인에도 자신의 고향인 베릿내 —천제연의 하류에 위치하며 관광단지화되기 이전에 조그만 어촌 마을—의 훼손에서 오는 정신적 정체성의 증발에서 오는 그리움이 있을 것이

17) 문충성, 「가로수」, 『바닷가에서 보낸 한 칠』, 문학과지성사, 1997, p.32.

18) 정군철, 「무릎 꿇은 나무」, 『수목한계선』, 한국문연, 2003.

며, 그것은 그에게 있어 세상에 대한 건담의 힘이다. 중문관광단지¹⁹⁾화 되어 버린 시인의 고향, 그 제주의 옛 기억이 그를 시 쓰게 한다.

4. 전설의 훼손과 기억으로의 회복

또한, 제주시 용담동(龍潭洞)에 있는 기암계곡 용연은, 옛날 용의 놀이터였다는 전설이 깃든 명소이다. 소설가 현기영은 자신의 자전소설에서 용연에 대한 기억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용이 잠자고 있다는 그 깊은 물에는 가지 않고 바위들이 많은 얕은 데서 놀았다.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은 서편의 절벽 근처였는데, 어른들도 두려워 거기에는 얼씬거리지 않았다. 그 물은 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밑창이 터져 곧장 저승과 통한다고 했다. …중략… 물빛도 비현실적일 정도로 깊은 청색이었다. 어찌나 새파란지면빛으로 보기만해도 몸이 오싹했다. 마치 불가사의한 자력이 있어서 내 몸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얕은 데서 한참 헤엄치며 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푸른 심연 가까이에 가는 수가 있는데, 그때의 두려움이라니, 물귀신한테 발목 잡힐까 봐 팔다리를 죽을 듯 살 듯 내두르며 도망쳐 나오던 일이 생각난다.²⁰⁾

작가는 용을 품고 있는 물빛은 비현실적인 광채를 내뿜고, 기암절벽 위, ‘늘은 땡나무 신목들이 얼크러진, 음습한 그늘 속에 자리 잡은 당집’은 그 용을 섬겨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고 회고 하고 있다. 유년 시절 용연과에 대해 갖

19) 중문관광단지는 서귀포시 중문지역 바닷가에 자리잡은 130만 평의 관광위락 단지로서 천혜의 자연조건과 인공이 잘 조화된 곳이다. 관광단지 주변에는 바다 전망이 아름다운 수직 50-60m의 해안 절벽, 고운 모래의 중문 해수욕장, 천지연 폭포와 계곡, 온갖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여미지 식물원, 바닷가에 자리잡은 해안 골프코스, 신라호텔, 롯데호텔, 하얏트호텔 등 최상급 호텔과 관광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 외국의 정상급 귀빈들이 자주 방문한 바 있어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국내 최대의 관광시설지구이다.

관광단지에서 서쪽으로는 안덕계곡, 화순해수욕장, 산방산, 사계리해안도로, 송악산이 가까운 거리이며 동쪽으로는 지샹개해안, 외돌개,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등 서귀포 관광지역과 동부권 관광지역으로 이어진다.— 제주정보네트워크(www.chejuinfo.net), 관광 편.

20) 《작가세계》, 1998년 봄, pp.100~101.

왔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 그 지하에 '싱싱한 생수의 수맥'이 용연에 이르러 마침내 솟구쳐 세상으로 떠오르는 그곳은 이제 주변에 조성된 시가지의 생활 하수가 흘러들어와 오염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의 기억 속에서만큼은 용연은, 훼손된 전설을 회복하고 그 시절의 물빛을 생생하게 되살려 내고 있다. 맹목적인 자본의 투입과 천편일률적인 개발을 통해 그 자체로 살아있는 거대한 유기물인 제주가 활력을 잃었지만, 현기영 소설에서 다시 생생하게 태어나는 용연 등의 자연에서 우리는 그 자체로 숨겨지지 않는 건강한 원시적 생명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문학이 갖는 정서적 복원력을 통해, 제주가 갖고 있었던 물과 사뭇 다른 독특한 특유의 문화와 함께 태초의 원시성이 깃들어 있는 공간을 신화적 상상력으로, 문학이라는 형식으로 복원해 놓은 장관을 문충성의 시편들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의 많은 시편들이 사실 제주의 이러한 원초적 신화성을 시적 소재로 삼고 있다. 제주도의 개벽신화인 삼성신화(三姓神話)가 있지만, 제주 토박이들의 신화 속의 거녀(巨女) 「설문대할망」 설화는 가히 전 국민의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단군 신화 이상의 장관을 펼쳐 보이고 있다. 한때 미약한 속국이었지만 한때나마 자치적인 국가 형태를 유지했던 국가적 면모 느껴볼 수 있다.

1

처음 하늘과 땅이 열린던 날에/제주 바다 생겨나고 그 바다 한가운데/불꽃 섬 하나 제주섬 솟아나고/이 섬에 설문대할망이 살았네/설문대할망은 이 섬을 이 세상 제일가는/낙원으로 만들 결심하고/평평한 섬이 보기에 즐겁지 않았네/설문대할망은 치마폭에 흙을 담아/제주섬 한가운데 산 만들기 시작했네/치맛자락 터진 구멍으로 줄줄줄/흘러내린 흙 모아져 여기저기/오망조망 오름들 생겨났네/……

2

깊이와 넓이 짓는 것이 바다만이겠느냐/한라산이여 민둥산 만들 순 없었네/설문대할망은 들판에 금잔디 깔고/……/높낮이 만들어 일천칠백이 넘는/나무와 풀 심고 보니 아름다워라/……다람쥐, 토끼, 노루, 사슴 이곳저곳/오소리, 두더지, 멧돼지 풀 어놓았네/호랑이, 사자, 여우, 늑대 같은 짐승은/한 마리도 이 섬에 살게 안 했네 /……/사람 귀한 섬이여 아들을 오백이나 낳았네/오백 아들 먹여 키우자니 설문대

할망은/똥고망이 찢어지게 가난하였네/가난가난 자식 키우며 평화 이루어 살았네
...중략...

4

...전략.../그렇게 깊다던 용연도 발목에 차고/서귀포 서흥리 홍리물도 무릎에 찻
으니/설문대할망은 그림 가슴까지나 찰까/한라산 물장을리로 성큼성큼 들어섰네/...
중략.../설문대할망 목까지 차올랐네/깊구나 점점 빠져나올 수 없네/.....후략

5

오백 아들은 어머니 죽음 알고 캄캄하게/세상살이 절망이여 허망을 보았네/한라
산 깊은 골로 들어가서/어머니 죽음 목놓아 통곡하고/눈물눈물 모아 눈물골을 만들
어냈느니/그 눈물 흘러 정방, 천지연, 천제연 폭포가 되고/통곡하며 통곡하다 토해
낸 핏방울들/한라산 철쭉꽃밭 철쭉꽃이 되고/울긋불긋 진달래꽃밭 진달래꽃이 되고
/어머니만 부르며 어머니만 그리다가/바위로 굳어져 오백 나한이 되고/.....후략²¹⁾

제주섬의 탄생과 함께 살았던 이 최초의 초월적 존재는 ‘치마폭에 흙을 담
아’ 한라산을 만들고 순한 짐승들을 풀어 놓는다. 전설의 용이 산다는 ‘용연도
발목에’에 밖에 차지 않는 설문대할망이 ‘가난가난’ 오백 아들들을 키우던 제
주섬은 그들에게 얼마나 비좁고, 그러나 평화로운 공간이었을까. 또한, 오백
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먹여 키우는 설문대할망의 ‘가난’은 인상적이 아닐 수
없다. ‘농사도 안 되던 척박한 땅/마소 키워봤자 밥먹기 힘들던 땅’(팔려버린 故
鄉), 제주섬에서는 ‘가난’ 또한 신화이다.

그런 설문대할망이 빠져죽었다는 전설이 깃든 물장오리²²⁾ 이름은 4·3사건
때 유격대 훈련장이 있던 곳이기도 했다. 오늘날 제주섬을 찾은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다. 어머니를 잃은 오백의 아들이 ‘목놓아 통곡’한 ‘눈
물’로 이루어진 ‘정방’ ‘천지연’ ‘천제연’은 지금은 명실상부한 패키지 관광코
스가 된 상태이다.

21) 문충성, 「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 문학과지성사, 1993, pp.25~32.

22) 해발 937m, 높이 120m, 둘레 3,094m, 면적 62만 8987㎡로, 권 물의 둘레는 400m, 화구 바깥 둘레는 1,500m이다. 제주시 아라동과 봉개동 경계에 있으며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있다.(네이버 백과사전)

제주 섬엔 맹수들이 없었고 까치도 살지 않았다/이렇게 없는 것이 제주 섬의 큰 자랑이었다/어디 까치뿐이라 가난한 섬이니깐/관광호텔, 비행기, 자동차, 고스톱, 컴퓨터도 살지 않았다/이제 제주 섬엔 모든 것이 산다/말하는 호랑이, 늑대, 이리…… 들이 산다²³⁾

어떤 명소에 전설이 깃들어 있다면, 그 전설이 물론 설화적 상상의 세계라 하더라도, 그러한 전설이 깃들이 위해서는 그 공간이 전설적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아우라를 내뿜고 있어야 가능할 터다. 용이 산다는 전설이 있는 용연의 지금의 물빛은 소설가 현기영의 유년시절과 비교하더라도 많이 혼탁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곳을 찾은 이들에게, 눈앞의 공간이 어울리지 않는 옷(전설)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허술해 보이지 않을까. 그 밖에도, 설 문태할망의 전설이 깃든 모처와 어미를 잃은 오백 나한의 슬픈 눈물로 이루어진 폭포들 또한 중문관광단지에 속함으로써 우리에 갇힌 야생동물처럼 원초적 야성을 상실하게 됐으며, 문충성이 시를 통해 제주의 원형에 대해 노래할 때 언급되는 삼성신화(三姓神話)의 현장인 한라산 삼성혈 삼성문²⁴⁾ 역시 현재 제주시 한 가운데 있는 제주칼호텔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사이 송림 숲에 세 개의 구멍으로 수미터 간격을 두고 위치해 있다.

5. ‘과거’로 쌓아 올린 현재의 제주

김녕미로공원(영화배우 이영애 CF촬영지), 섭지코지와 아부오름(영화 이재수의 난 촬영지), 외돌개, 송악산, 비양도, 협재굴(드라마 대장금 촬영지), 섭지코지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드라마 올인)의 공통점은 유명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였다는 데 있다. 가령, 드라마라는 허구성을 감안하더라도 올인 등의 드라마에서 우리는 카지노 개발권을 둘러싼 암투를 맺진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시청하면

23) 문충성, 「제주 섬엔 까치가 살지 않았다」, 『바닷가에서 보낸 한 철』, 문학과지성사, 1997, p.84.

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동(二徒洞)에 있는 신화유적(사적 제134호). 3성은 제주를 본관으로 하는 고(高)·양(良)·부(夫) 이 삼신인(三神人)은 솟아났다는 땅속의 모흥혈(毛興穴)

서 당시 제주섬에 유입된 자본과 개발의 빛과 그늘을 흥미롭게 들여다 볼 수 있다. 붕기 항쟁의 현장, 유배와 죽음의 현장, 관광 산업화와 소외의 현장 등의 연대기를 갖고 있는 제주가 바뀌 입었던 옷을 현대의 우리는 이러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착용해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뮬라크르를 통한 체험에서, 언제나 ‘역사’는 배우들의 비주얼과 드라마의 스토리에 우선순위를 빼앗기게 된다. 물론 제주의 다양한 시대적 모습과 제주를 찾을 잠재적 관광객들과의 소통의 효과적인 통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고편’에 불과하다. 사실 이러한 드라마 프로그램은 종료 후에도 그 세트장 등은 그대로 남아 관광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드라마 속의 현장은 그 자체로 한류와 함께 몰려든 외국인 비롯한 관광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관광지이다. 관광객들은 텔레비전 속에서 자신들을 평평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절절하기 그지없는 이야기가 펼쳐졌던 그러나 가상의 공간을, 실제의 현장으로 만나면서, 그 시뮬라크르 속에서 느꼈던 감동이, 영상 속의 허상일 뿐이라는 이성 따위는 잠시나마 해체시키고, 한번더 ‘현실적’으로 생생히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다면 누군들 감격적이지 않겠는가.

이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촬영지는 물론 그 자체로도 훌륭한 절경이지만, 파스텔톤의 가설 구조물과 인기배우들을 담아 영상화됨으로써, 그 외의 고작(?) 역사적 현장, 문학 작품에 주인공이 유년을 보냈던 원초적 아름다움이 배어 있는 명소 등에 비해 몇 배의 관광객을 끌어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제주라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저들은 드라마라는 ‘제주에 대한 예고편’을 보고 왔다가, 예고편만 보고 가는 셈일 것이다. 미디어의 ‘안개’에 제주는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아름다운 진면목을 보여줄 기회를 자주 잃게 되고, 점차 몰개성화 된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자본을 등에 업은 매스미디어들에 제주섬은 그 장(場)을 펼쳐준 셈인데, 이러한 자본의 유입은 제주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보로 하는 동시에 필요한 가설 구조물을 세우고 그리고 그대로 남김으로 해서 자연의 훼손과 풍경의 변형을 가져온다는 모순에 놓이게 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치 판단을 넘어 이미 제주는 관광지로서의 특별 가치구화 되어 있고, 제주와 관광은 이제 개별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제주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관광지로의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현재 제주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제주가 다시 정상치로 회복해야하는 전통, 문화적 정체성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제주의 ‘역사’에 대한 여전히 진행형의 고민이 필요할 터이다.

……전략/역사 속에서/삼별초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고/조선 왕조 탐관오리들 오가고/ 유배 오는 정치 선비들도 보았고/일제 식민 시대엔 사무라이 게다작들 들락 이는 꼴도 보았고/4·3때 허깨비 이데올로기에 쫓겨/한 마을 사람들 죽고 죽이는 통곡도 보았고/요즘엔/발 아래/사찰 짓고/학교들 짓고/멀리 호텔을 짓고/날마다 신비를 잃어버리며 올라오는 종소리/허 꼬부라진 글 소리/기생 관광 술 노래/뽕뽕 귀 아픈 자동차 소리를 듣는다/……후략²⁵⁾

‘조사’와 ‘탐구’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히스토리아’에서 그 어원을 둔 ‘역사’는 전통, 문화, 예술을 한 줄에 꿰는 실이 될 것이다. 현재란 과연 무엇인가?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현재는 하나의 미세한 점이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는 태어나자마자 곧 소멸하는 하나의 순간이다.²⁶⁾ 이는 곧 역사의 더께위로 매 순간 내려앉는다. ‘현재’의 한없는 겹침이 ‘역사’다. 관광 명소로서 변신한 제주 또한 이미 이 순간 역사 속의 무수한 제주의 모습과 동등한 한 진실 된 모습이다. 그러나 관광 명소 제주에 대해 왜 시인들은 ‘아프다’라고 노래하는가? 단순히 친자연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과거’지향적인 일부 시인들의 개별 취향에서 나오는 불편한 심기일 뿐인가?

현재에는 일체의 권위를 상실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과거의 사물들을 생각해보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소멸해버린 신앙, 실패로 끝난 사회형태, 사멸한 기술……. 이것들이 과거지사여서 현재를 이해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25) 문충송, 『別刀峰』, 『설문대할망』, 문학과지성사, 1993, pp.82~83.

26) 마르크 블로크, 고봉만 역, 『과거와 현재』, 『역사를 위한 변명』, 한길사, 2007, p.67.

되지 않는다고²⁷⁾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이 모든 시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늘 날의 관광 제주가 온전한 역사 속에 복원되기 위해서는,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서의 제주 모습과 함께, 삼별초가 몽골군에 끝까지 항쟁했던 제주, 고독한 유배지로서의 제주, 일제 수탈의 중간지로서의 제주, 4·3정치 이데올로기에 죄 없는 민초들이 무수히 희생됐던 제주, 이 모든 상처 위에 창작된 문학 작품들, 그 밖에 문화 예술들이 평등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제주 섬은 과거와 현재의 문화가 어우러져 다양한 개성의 스펙트럼을 내뿜는 천혜 관광지로 다시 복원 될 것이다. 문화와 자연이라는 블루칩에 집적된 ‘역사’와 지금이라는 이름의 ‘역사’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는 제주, 이것이 처음 문제제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자, ‘가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참고문헌

- 곽재구, 『곽재구의 포구기행』, 열림원, 200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지도 下』, 계몽사, 1996.
문충성, 「돌하르방」, 『제주바다』, 문학과지성사, 1978.
_____, 『설문대할망』, 문학과지성사, 1993.
_____, 『바닷가에서 보낸 한 철』, 문학과지성사, 1997.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지성사, 1999
정균철, 『수목한계선』, 한국문연, 2003.
장그르니에, 『섬』, 민음사, 2001.
마르크 블로크, 고봉만 역, 『역사를 위한 변명』, 한길사, 2007.
《작가세계》, 1998, 봄.

27) 위의 글, p.74.